

Theme 4 복고를 통해 본 세상읽기

지금의 복고유행은 소수 지배층에 의해 의도적으로 확산된 지극히 보수적인 문화라는 담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우리신문에서는 '복고' 특집을 다뤄 복고 현상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등을 모색해 독자 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현실패러다임 해체가 부른 '회귀현상'

□ '복고풍' 문화 텍스트 읽기



신성철 <홍익대 영문과 강사>

문화란 그 밑바닥에 은밀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사회의 '복고풍'은 일종의 문화 담론이며 정치적 실천이다. 빛바랜 추억의 앨범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법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애타게 재생산되고, 신파조의 연극들이 무대에서 공연되며, 누더기풍의 빈티지패션들이 거리를 수놓고, 60-70년대식의 '하면 된다' 류의 광고들이 앵무새처럼 텔레비전 속을 범람한다. 이런 복고풍 문화 텍스트들이 이 시대에 난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플라코우스키가 말한대로 서구식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문화 담론의 다양함과 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일까? 소위 말하는 고급문화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대중문화에 그 자리를 내어 주었기 때문일까? 세기말이면 나타났던 했던 일시적인 문화 현상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은근이 자신의 거룩함 때문일까?

어쩌면 초기의 '복고풍'의 담론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들만으로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고풍' 문화 담론을 이야기하기에는 석연치 못한 구석이 너무나 많다.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에서도 복고풍 문화담론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것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우리의 '복고풍' 문화 텍스트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경제 위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것과는 달리 현실 도피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우리시대의 복고풍 문화 담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 패러다임 해체에 대한 수동적 허무주의, 혹은 패배주의의 표상이며, 기득권 계층에게 있어서는 전통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통한 기득권 지키기 성격이 강한 것이다. 하나의 패러다임의 해체는 또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의미의 무의미함, 즉 허무주의를 경험하게 된다.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허무주의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의 형이상학적 허무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의 해체론적인 허무주의이다. 형이상학적 허무주의는 수동적 허무주의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반동적이고 복고적이며 과거 회귀적인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패러다임이 붕괴되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우리 시대의 '복고풍' 문화 담론은 이런 형이상학적 허무주의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복고풍 문화 담론의 또 다른 성격은 전통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획책한다는 점이다. 복고풍 문화 담론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은 항상 이상적인 가족 체계로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상징한다. 가정은 문화의 최소 단위이다. 가정의 문화는 그 가

정이 속한 사회의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재의 복고풍 문화 담론은 가부장적 권위를 살리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그것만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재생산과 관련이 있는 복고풍 문화 담론의 또 다른 특징은 현실에 만족하고 기존의 권위에 복종하려는 이데올로기이다. 우리 시대의 복고풍은 그 배경이 거의 1960-70년대이다. 복고풍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1960-70년대를 그 배경으로 태어난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소득 수준이 그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전혀 설득적이지 못한 이유는 그 말이 1960-70년대와 비교를 하면서 지금의 우리 처지가 그 때보다 좋았다고 강변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의견이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설명 그렇다고 해도 복고풍의 문화 텍스트는 기존의 정치와 권위가 과거의 그것보다는 좋으니 믿고 따르는 것이 저항하는 것보다 좋다는 무의식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차별의 정치학을 정당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복고풍 담론 속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우리'로 통합되고 함께 고통받는 희생자로 변

하면서 그 변별성이 없어진다. 그것은 가진 자의 죄책감을 희석시키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갖지 못한 자들의 담론을 무력화시킨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복고풍의 문화담론은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보수적 이데올로기 기제로서의 복고풍 문화 담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문화 비평적 시각을 가지고 그것의 보수적 이데올로기성을 폭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주체들을 교육, 재생산하며, 그들 사이의 연대를 형성하고, 역담론의 생산과 유포를 해야 할 것이다. 복고풍 문화 텍스트를 다시 쓰는 행위는 현실 속에서 과거적인 것은 철저히 분쇄하고, 과거화되기 시작한 것은 더욱 과거가 되게 하고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의미의 경험은 새로운 초월적 의미를 재생산해내기 때문이다.



□ 유행의 '악덕' 과 미학 - 역사성으로 보는 복고풍

복고란 유행이 되풀이되는 것. 유행이란 마치 후렴을 지닌 노래처럼 되풀이됨으로써 비로소 그 진면목이 발휘된다. 이 '복고풍' 속에서 나와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분별을 갖자.

## 유행의 물결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자

이광주 <문학박사, 서양사전공>

지금 '복고풍'이 일종의 유행이라고 한다. 그것은 여성들의 의상이나 머리모양, 화장법에서부터 가구나 실내 장식 혹은 자동차의 디자인과 건축 인테리어에도 나타나고 당연히 유행이나 방송-TV의 프로그램 편성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복고 현상은 이미 4-5년 전부터 일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행이라는 것과 거리를 두었다기보다는 그것들과 무관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나로서는 복고풍이라고 하나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유행이란 낡은 것, 인습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짙게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유행 현상은 젊은 세대에 의한 미학적 지적인 삶의 창조적 실천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5%라는 유행을 창출하는 그

젊은 세대의 대부분이 특히 여성이라는 사실은 '모드'나 '패션'이라는 말이 밝혀 주듯이, 유행의 초점은 필경 여성의 아름다움에, 신체적 단장에 맞춰져서 마련이다. 이렇듯 유행의 발원지는 새롭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젊은 여성의 신체이다. 유행은 보통 2-3개월의 열정기를 지나 1년 정도의 수명을 지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간에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참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동사(同似)현상을 자아낸다. 경박하고 어리석다는 유행현상의 '악덕'은 그 발원지(설사 그것이 뉴욕이나 파리라 할지라도)여성의 신체라는 점에 있지 않고 바로 원숭이처럼 '홍내내기'를 좋아하는 집단적 동사현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몇몇 전 어느 흐린 여름 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정원에서 우리의 관광객인 듯한 40대 여성 5-6명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성들 모두가 너나할 것 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 흐린 날씨에, 그와 비슷한 진풍경을 우리들은 서울 거리에서도 심심치 않게 본다. 변화나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한 행태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혹은 정신적 콤플렉스와 표리를 이룬다고 한다. 이제는 국민적 승승치런 되어버린 이 땅의 유행병은 그간 우리 사회의 지속적 불안정의 반영일지 혹은 욕망의 사회를 살아가는 정신적 열등감의 귀결일까. 이



유행병이라는 고집을 치유할 길은 무엇일까. 자기를 아름답게 부각시키고자 유행의 속임수에 넘어가 신기한 것, 인기있는 것만을 분별없이 변덕스럽게 뒤쫓음으로써 오히려 어리석음만을 드러낸 많은 사람들의 추태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타인이란 또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거늘 유행이라는 도도한 물결 속에서 모두가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이다. 삶이란 그 자체 양식(스타일)을 요구한다. 아름다운 양식이 어찌 젊은 여성들만의 몫이겠는가. 그것은 또한 모두의 바람이요, 공유재산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듯이 모든 사교가, 문화의 모든 영역이 되풀이된다. 되풀이됨으로써 의식의 단계가 더욱 높아지고 사물은 본질로 농축된다. 복고란 유행이 되풀이되는 것, 유행이란 마치 후렴(리프레인)을 지닌 노래처럼 되풀이됨으로써 비로소 그 진면목이 발휘된다. 이 '복고풍' 속에서 나와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분별을 갖자.

경희대학교 대학원

### 1998학년도 후기 석사·박사 학위 과정 특별전형

<p><b>모집과정 및 모집학과</b></p> <p>1. 석사학위과정 : 국어국문, 영어영문, 불어불문, 중어중문, 일어일문, 서반어어, 사학, 철학, 사회, 법학, 행정, 정치,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수학, 생물, 지리, 물리, 화학, 아동복지, 식품영양, 의상, 농학, 일할, 식품가공, 조경, 원예, 유전공, 환경, 우주과학, 약학, 임상약학, 간호, 기계공, 화학공, 섬유공, 전자공, 토목공, 건축공, 원자력공, 전자계산공, 산업공, 전파공, 의학, 치의학, 한의학,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도예, 스포츠과학, 산업디자인.</p> <p>2. 박사학위과정 : 수학, 생물, 지리, 물리, 화학, 가정, 식품영양, 농학, 임학, 식품공, 조경, 유전공, 환경, 우주과학, 약학, 간호, 기계공, 화학공, 섬유공, 전자공, 토목공, 건축공, 원자력공, 전자계산공, 산업공, 전파공, 의학.</p> <p>3. 협동과정 : 학·연 협동과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석·박사과정 :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치의학, 기계공학, 섬유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식품의약품안전청 (석사과정 : 화학, 생물학, 약학, 한의학), 한국한의학연구원 (석사과정 : 한의학), 한국인삼연구소(석·박사과정 : 한의학) 학과간 협동과정 - 동서의학(석사과정), 정보디스플레이(석사과정), 기술경영(석사과정)</p> <p>4. 연구생 : 전 학과 석·박사학위과정</p> <p>* - (밑줄) 표시된 학과의 원서접수 및 전형은 수원캠퍼스에서 실시함.</p>	<p><b>모집인원</b> 학과별 약간별</p> <p><b>원서교부</b> 1998년 5월 8일(금) ~ 5월 15일(금)</p> <p><b>원서접수</b> 1998년 5월 13일(수) ~ 5월 15일(금)(해당캠퍼스 대학원 교학부)</p> <p><b>전형일자</b> 1998년 5월 21일(목) ~ 5월 23일(토) (학과별 실시)</p> <p><b>전형방법</b>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예·체능계 학과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음)</p> <p><b>지원자격</b></p> <p>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교육기관, 정부기관, 연구소 등에서 근무경력에 있는 자,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 학술·예술상 수상자 및 연구능력 우수자는 면접시험에서 해당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음. (중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p>2. 박사학위과정 : *공통사항 : *의문처(☎) : 대학원 교학부 ☎ 서울 02) 961-0122~0124 / 수원 0331) 201-2135~2136</p> <p><b>제출서류</b></p> <p>①입학원서 ②어린용사진 4매(원서용 포함) ③최종학교 졸업(예정) 및 성적 증명서 (각 학위등록번호 및 배분용 성적 기재) ④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⑤추천서(소정양식) ⑥제적증명서, 연구실적물, 각종 자격증명서(해당자) ⑦이력서(박사과정 지원자) ⑧학업(연구)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 * 외국대학(원) 졸업자는 ③항의 서류 제출시 한글공중 번역문을 첨부하고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p> <p><b>제출서류</b></p> <p>본 대학원 박사과정은 4학기 수료가 가능하며 자연계 박사과정은 병역특례 대상임.</p>
--	---

**대 학 원**

**중앙도서관 제2회 독서토론**

〈만인보〉의 작가 고은

때: 1998년 5월 13일(수) 오후 3:00  
곳: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주관: 중앙도서관

진행순서

■제1부: 시인 고은 선생 강연

만인보, "문학과 인간평등사상"

■제2부: 지정토론:

한원균(문학평론가, 청주전통대 교수)  
김수이(문학평론가, 경희대학교 강사)

공개토론: 독자와의 대화

\* 고은(시인)은 1933년 출생하여 독학했다. 1958년 불교신문 초대주필, 문학활동 시작 - 현재. 1980년 실천문학 창간. 1990년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1994년 경기대학교 대학원교수, 고은시전집, 전원시편, 황토의 아들, 백두산, 만인보, 아침이슬(영문) 등 100여권의 저서,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만해상 등 다수 수상